

## “훌륭한 마침표 찍을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힘까지 최선”


### Interview

박성민 현대건설 상무 / 건축사업본부 건축기술지원실 실장

사무실에 뱀이 나타났다. 종합건설사들은 이 뱀을 어떻게 처리할까? 모 회사는 상부에 보고부터 한다. 어떤 업체는 협력업체를 부른다. 또 어떤 회사는 작전회의부터 한다. 또 다른 업체는 전 직원이 모여 회의를 한다. 직원이 바로 잡는 회사도 있다. 각 업체별 정체성을 우스개 소리로 표현한 말이다.

직원이 바로 잡는 업체는 바로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불도저’란 또 다른 별명이 있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토의 핏줄인 도로를 닦고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고 건물을 세우는 등 아무 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불도저처럼 건설산업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발전을 견인한 현대건설이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이번 호에는 지난 2월 7일 상무로 승진한 현대건설 박성민 상무(건축사업본부 건축기술지원실 실장)를 만나 보았다.[편집자 주]

 먼저 상무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건설회사에서 기계설비 분야 직원이 임원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의미가 큼니다. 군에서 막 제대한 후 1987년 7월 6일 현대건설 해외건축사업본부에 입사하여 올해로 30년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금메달을 줍니다. 30년 근속에 해당되는 무게의 메달을 받게 됩니다. 7월이면 나는 부자가 됩니다.(웃음)

또 지난 2월 7일 상무로 승진하였습니다. 임원이 된다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 분야를 떠나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은 5천여 임직원 중 임원이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중 기계설비직 임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오르기 힘든 자리이지만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현장 근무 13년여를 포함, 입사 30년 만에 임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제가 걸어 온 길,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큰 자긍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조직에서의 인간관계, 저의 성격 또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용하고 세심한 성격입니다. 세심한 것은 성격으로 보나 조직사회에서 분명 장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섬세함과 디테일에 강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디테일한 시공이 요구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의 세심함이 기계설비 분야와 잘 맞아떨어져 완벽에 가까운 시공을 해왔다고 자부하며, 조직에서나 업무에서나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임원은 나의 회사생활에 훌륭한 마침표를 찍을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현대건설이 70돌이 되었다는 것을 직원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 또한 큼니다. 요즘 기업의 영속성은 20년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70년간 오로지 외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브랜드 가치, 전문성과 수익성, 우리 사회나 건설부분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현대건설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성장성·안정성을 갖춘 핵심상품과  
신성장동력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조직·기획·영업·기술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엔지니어링 기반의  
글로벌 건설리더’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일각에선 현대건설의 역사를 대한민국 건설 역사와 동일시 합니다. 전후 복구사업에 이어 1960년대 토목분야를 주축으로 기계설비, 전기, 플랜트, 건축 전 분야의 시공능력을 고루 확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공사와 함께 60년대 2대 토목공사의 하나로 꼽히는 소양강 다목적댐을 건설하였습니다. 플랜트 공사인 단양 시멘트 공장과 한국비료 울산공장 등 국내의 대표적인 건설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해외진출도 현대건설이 먼저였습니다. 1966년 태국 고속도로 공사로 해외건설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후 현재까지 해외에서 59개 국가 821개의 프로젝트(총 해외수주액 1,227억달러)를 수행하였습니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던 경제개발 시기엔 열사의 땅 중동으로 진출하여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국가 재정을 보탬고 국토개발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1988년 사우디 리야드 병원현장에서 기계설비 직원들과 함께(뒷줄 오른쪽)

현대건설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성장성·안정성을 갖춘 핵심상품과 신성장동력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조직·기획·영업·기술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엔지니어링 기반의 글로벌 건설리더'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Q** 임원이 된 것은 명예롭기도 하지만,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방향이나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우리 현대가 걸어온 70년 건설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급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기업환경만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인드나 추구하는 가치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나 우리 현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혁신의 패러다임을 비롯하여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중 하나는 과거처럼 건설을 특정하여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의 건설, 전혀 다른 타 업종과의 결합으로 인한 신사업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건축설비, 전기, 통신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건축기술지원실은 앞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축기술지원실 단위에서 팀장의 교체도 시행하였습니다. 팀장의 역량과 성격에 따라 팀 분위기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또 건축설비, 전기·통신, 토목, 조경 등 4개 파트의 각 분야가 제대로 시공되어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Q** 상무님은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무님 인생에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해외건설 현장을 누비던 13년의 세월 동안 저는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만 벌어서 주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돈 잘버는 아빠가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옆에 같이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한반도 지도를 강 위에 그려놓은 것으로 유명한 강원도 영월군 평창강 위에서 가족과 함께  
▶ 보성 녹차밭에서 아내와 함께



돈, 지위, 사람관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같이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이자 가족애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고 저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아내도, 긴 방향을 끝내고 돌아와 대학 2학년이 된 큰아들도, 사춘기로 접어들며 방향을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 작은아들도 나에게 정말 소중한 가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베스트를 다하여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슴 뭉클하게 했던 시, 혹은 좋아하는 글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얼마 전 중앙일보 '시가 있는 아침' 코너에 그림자들(이원)이란 시가 실렸습니다. 이 시를 읽는 순간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내 앞에 펼쳐진 삶의 무게만 생각했지 내 뒤에 남겨진 그림자의 아픔과 고통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구석진 그늘, 돌보지 못한 그림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월간 '기계설비' 독자들도 뒤에 남겨진 그림자의 고통과 아픔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그림자들'이란 시를 소개합니다. 

**그림자들** | 이원(1968~, 2008년 미당문학상 후보작)

바닥은 벽은 죽음의 뒷모습일 텐데 그림자들은 등이 얼마나 아플지를 짐작이나 할 수 있겠니  
무용수들이 허공으로 경충경충 뛰어오를 때 홀로 남겨지는 고독으로 오그라드는 그림자들의 힘줄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니  
한 사내가 또는 한 아이가 난간에서 몸을 던질 때 미처 뛰어오르지 못한 그림자의 심정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니  
몸은 허공 너머로 사라졌는데 아직 지상에 남은 그림자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할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니